

### 절대언약 (사사기 16:23-31)

오늘 볼 말씀은 절대 언약이다. 삼손이 그렇게 되어도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삼손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못 막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잡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 언약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신다. 출발부터 말씀이다. 재료는 필요 없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답이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 고치면 된다. 사단이 자꾸 그렇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눈 뜨고 나오는 복을 받았다. 복음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다. 언약을 알면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한다. 말씀이 전부인 이유는 그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언약은 말씀이 핵심이고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인간을 저주에서 건질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 끝까지 전하라 했고,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계속 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문제와 재앙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 일을 평생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1. 절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었다. 할례도 행하라고 하였다. 24시간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내 언약은 안 변한다는 것이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실인이었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 비밀을 사단에게 노출시켜서 완전히 영망이 된 것이다. 눈 뵘히고 노예되었고 소가 되어버렸다. 멧돌 돌리는 처지가 되었다.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때의 예언이 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임신 하여 아들을 나으면 삭도를 대지 말라 하였다. 아들이 없었는데.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나실인이라는 것이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때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쪽 읽어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곤 하였다. 15장 4절에 보면 여우 삼백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해를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서 다 태워버렸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이 되는 사람이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줘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블레셋이라도 이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 15장 15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천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걸려서 힘이 노출되고 블레셋에 잡히고 말았다. 16장 21절에 보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고 눈줄을 매고 옥에서 멧돌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실인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사단에게 노출한 후에 생긴 비참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영적 전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16: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신 것이다. 사단은 몰랐다. 머리가 길면 힘이 돌아온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난 후에도 알수 없는 것이 언약의 비밀이다. 머리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서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런데도 몰랐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사단은 언약과 그 안에 있는 비밀은 무슨 짓을 해도 모른다. 그리고 알아도 어쩔수 없다. 사단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명령 한 것밖에 못한다. 피조물이니까. 옴에 대해서도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했다. 그러면 절대 손 못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몸에는 손대도 되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결국 옴은 두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 하나 뿐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비밀도 하나님은 완전히 성취하신다. 잊지 말아야 하고 언약되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삼손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자기가 힘들 뿐 언약에는 지장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뿐이다.

창세기 15장은 언약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쪼갠 짐승 사이로 햇불만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지나갈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이 건 내 언약이니까 내가 지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니가 내 언약을 위하여 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너는 죽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니가 죽는다고 해서 내 언약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그 때는 증인도 필요없었다. 너와 나 사이에 증인 필요 없다. 누가 내 증인이 되겠냐? 내가 증인이다. 내가 죽음으로 완성한 이 언약을 너는

오직 두려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중요한 메시지이다.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무슨 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늘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답이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무도 손 못댄다. 언약으로 살면, 당연히 음부의 권세는 날 건들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였다. 땅의 모든 문을 이것 하나로 열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하나 뿐이다.

## 2. 남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은 자이다. 언약을 누리고 인생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증인 되는 것이다. 세상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계속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증인 되어야 한다. 미국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교회가 필요하다. 남미의 제자들도 이것을 알기 원한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한 개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미국에 사는 것이다. 내가 왜 미국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다. 미국이나 남미나 전세계의 교회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 모른다. 완전히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교만할수도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영적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른다. 왜 이런 저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는가? 그 답이 뭔가 잘 모른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안다. 서론에 보면 많은 문제 써놨다. 서론의 마지막에 질문 두 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중요하다.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이유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답은 없냐는 것이다.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두려야 한다. 알고 두려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언약이다. 그러면 그대로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언약잡고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문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이 계속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안 바뀌는 것은 하나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

스도 누림으로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드리면 더 큰 증거가 나타난다. 전도는 그리스도 같이 구원받는 그런 언약은 아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 구원받고 정복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응답 받는다. 더 큰 응답 받는 길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마음에 담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인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 해야 한다. 전도해야 하고 선교 해야 한다. 여기에 마음이 담긴자는 그리스도를 더 크게 누리게 하고 더 깊게 누리게 한다. 더 큰 증거를 주시고 더 크고 더 멀리 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미국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똑똑한데,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았다. 이 언약을 두고 소원을 두고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안디옥 교회이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내용을 미국과 남미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하고 후대도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남길자이다.

삼손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이다.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포인트가 있지만 중요한 것,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수하고 타락도 하고 그래도 관계없다. 나는 내 언약대로 행할 것이다. 내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아무도 막을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다. 언약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용히 내 마음에 담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히 기도할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꾸면 더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내 인생이 그런 언약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더 크게 된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00팀 100지교회 당연히 가야 할 언약이다. 미국과 남미를 두고 하나님이 가진 소원이다. 위하여 개인적으로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시간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 고백도 하는 것이다. 매일 승리하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안변하는 것은 이것 하나 뿐이다. 정말 237, 남미, 미국 살리는 시대적 교회 되기를 바란다.